

기획의도

지금 사랑하지 않는 가족, 모두 유죄일까요? 지난여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매일 썼던 일기에서 저는 제 가족을 되돌아보며, '가족임에도 서로를 선택할 수 없는 우리, 부모자식이라는 우리 혈연은 각자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맺어진 사이'라고 쓴 적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상 가족이라는 한정된 범주를 믿으시나요? 아버지는 가족의 질서를 바로잡고 어머니는 모성애를 발휘해야 마땅한 존재일까요? 임의로 주어졌던 각자의 이름처럼, 이 땅 위 우리 모두는 여생을 함께할 각자의 가족을 '우연히' 만났을 텐데, 여러분은 그들을 우연히 사랑하게 되었나요, 혹은 우연히 미워하게 되었나요? 제 영화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남다른 주제거리인, '부부를 중심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라는 범주로 정의된 '가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본 영화는 오직 집이라는 고정적이고 통제된 단일 공간을 다룹니다. 그런데 과연 집은 고정적이고 통제되어 있을까요? 너무나도 우연적인 우리 삶에서 완전히 통제된 곳은 없습니다. 3년 전 간밤에 자신의 침대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가장 사랑했던 친구의 죽음 이후로 저는 '권선징악'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지 되물으며 우연에 목숨을 맡겨야 하는 세상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구역성서 읊기에 나오듯, 자신의 목숨 빼고 모든 걸 빼앗아간 세상을 원망하던 주인공 읊처럼요. 그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친구 엘리바즈는 읊의 불행을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불행의 원인을 읊의 부정함에 돌리며 그를 탓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친구에게, 나아가 자신의 가족에게 '엘리바즈'처럼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서글픈 예감은 본 영화의 제목이 '나의 엘리바즈'인 이유기도 하죠.

본 영화는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채 애도하기를 실패하고 멜랑콜리의 상태에 접어든 사람과,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미쳐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망각, 선택적 기억, 뒤얽힌 인과, 반복적 재현, 꿈과 현실이 뒤섞인 상태에서 극 중 어머니는 현실의 모든 걸 의심합니다. 심지어 아들의 존재까지도요. 그런데 들리츠는 '분열증적 인물'의 정신분석적 전복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주창했습니다. 저는 그 '안티고네적 인물'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영화라는 허구에 온전히 담아내려고 합니다. 프리-프로덕션은 이러한 기대감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

어머니는 딸의 죽음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딸의 환영을 자주 마주한다. 환영에서 어떤 남자가 딸을 폭행하고 죽이는 장면을 스치고, 그때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는 환영 속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온다. 잠시 후 아들이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집으로 들이는 여자는 딸과 같은 모습을 한 채

자신에게 모녀 역할극을 제안하고, 엄마는 더욱 혼란에 빠진다. 결국 아들이 차린 점심식사 도중 엄마는 아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한다. "넌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이제 엄마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이, 불안만이 있는 하룻밤을 가짜 아들딸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

역할개요

엄마 역(란) - 환상을 포함한 환각과 각종 망상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이 무너진 채로 죽은 딸(수현)을 지독하게 그리워한다.

아들 역(수현) -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자신이 란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면서도 자신을 부정하는 엄마를 곁에서 돌보기 위해 노력한다.

딸 역(수현) - 엄마(란)의 환상 속에서 자기-혐오를 앓다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으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엄마(란)를 혼란에 빠뜨린다.